

기초학력 향상 학교의 특성과 성공 요인

기초학력 향상 학교들 '뭔가 남다른 게 있다'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진 학교들의 특성과 성공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과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중학교 3,140개교를 대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에 모든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진 학교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53개교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3개 학교-충현중학교, 음성여자중학교, 탄현중학교-를 찾아 학교장 및 담당 교사들을 인터뷰했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충현중		탄현중		음성여중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국어	3.7	0	1.0	0	2.2	0
수학	3.7	3.3	4.9	1.6	5.8	1.0
영어	0	0	2.9	0	0	0

< 학교생활만족도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 >

	2011	➔	2012
충현중	50.0	(+ 29.3)	79.3
탄현중	48.5	(+ 28.5)	77.0
음성여중	56.8	(+ 21.3)	78.1

그 결과, 지역 환경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중시한 인성 교육과 진로 교육, 교사-학생-학부모-지역 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이 이들 학교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주변 환경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3개교 교사들은, 교사-학생-학부모-지역 사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인성 발달을 위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충현중학교는

2011년 개교 당시 신입생 90명을 제외한 23학년은 주변 학교에서 전입한 학생들이었다. 지역 특성상 학부모들이 돌봄 기능이 약했으며, 학업에 흥미가 없고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이 많았다. 학습의 의미를 모를 뿐더러 수업 참여조차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먼저 끌어안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찬 학생들이 모습이 보였다. 학교장과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수업 모형도 단순 주입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 협력 학습, 탐구 학습, 토의토론 수업, 체험 학습, 창의성 계발 학습 등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업 모델을 대거 도입했다. 이와 동시에,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는 아침맞이 프리허그(Free Hug)와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생활화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살가운 신체 접촉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교사들의 진정성이 전달되면서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아졌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학력 신장 프로그램들을 가동했다. 대표적인 것이 3색 멘토링제다. 수업 협력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인 '연두', 대학생 멘토들과 의형제-오누이 맺기 프로그램 '파랑', 과목 담당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초록'이 그것이다. 3색 멘토링은 학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지만, 수업 시간에 소외되었던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어루만지는 역할도 톡톡히 했다.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발달 단계를 신중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2011학년 기초학력 미달이 3.7%였던 국어 과목은 2012년 0%가 됐으며, 20.37%의 높은 미달률을 보였던 사회 과목은 2.17%로 감소했고, 과학 과목은 16.67%였던 것이 4.35%로 줄었다.



충현중학교



탄현중학교

탄현중학교는

교통 문제로 인해 조기 귀가해야 하지만 귀가 후 가정에서는 방치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를 실시했다. 아파트 주민자치시설 등 학생들의 거주지 근처 시설에서 하루 2시간씩 방과 후 수업과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교실'로 학생들을 흡수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방과 후 학습 공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오후 9시까지 교내의 자기 주도 학습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학습 동아리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학습 동아리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효율적인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며, 토론 중심의 진행을 통해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고 있다"고 이 학교 교무기획부장 교사는 전했다.

학습 동아리의 효과를 온전히 본 학생이 있다. 학교 대표 축구선수이지만 공부에서는 끌려있던 이 학생은 도무지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에 친구들이 적극 나섰다. 일단, 체육 과목 100점에 도전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집중 공략했다. 이 학생은 다음 시험에서 체육 과목 만점을 받았다. 이를 경험한 학생도, 도와주고 지켜본 학생들도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커진 것은 당연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1학년 4.46%였던 탄현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학년에 0.82%, 2013학년에는 0.65%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음성여자중학교는

학력 향상을 위해서 이른바 '09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기초학력 미달 0%, 보통학력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이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우수 학생을 연결한 우정의 멘토링, 매일 수학 1문제·영어 1단어 외우는 수학꽃씨 플래너와 영어꽃씨 플래너, 전교생을 학급당 5개조로 나눠 조별로 공부하고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조원들에게는 능협 상품권을 상품으로 시상한 도(움)키(움)나(눔) 조별 학습, Early Morning 30권 책읽기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야 '공부를 처음 해본다'



음성여자중학교

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각 프로그램들은 단지 학력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협동과 배려 같은 공동체 정신을 배울 수 있어 인성 발달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그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0학년에 평균 8.6%였으나 2011학년에 2.9%로 급감하였고 2012학년 0.19%, 2013학년에는 0%를 달성했다.

인성 교육 · 진로 교육의 결과 '자존감 향상, 행복한 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매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단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3개교의 공통점이다. 학생들 하나하나가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학생들은 즐겁게 학교에 오고, 강요된 공부가 아닌 자신의 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려와 소통의 인성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는 충현중학교의 인성 교육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꿈 찾기-꿈 갖기-꿈 가꾸기' 진로 지도이다. 1학년 때는 꿈을 찾고, 2학년 때는 꿈을 가지며, 3학년 때는 꿈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 자신의 꿈이어야 한다. 부모가 대신 꾸어주는 꿈이 아니라.

다른 하나는 '세움-다음-이음' 충현 커뮤니티스 프로젝트다. 공동체의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 합의한 규율을 '세움',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스스로 세운 규율을 지켜나가는 '다음', 그리고 이를 학교 밖으로 확장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로 연결해 나가는 '이음'이다. 여기에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음성여자중학교는 학교 폭력이 전혀 없다. 충청북도 각급 학교에 배포된 "학교 폭력 안돼"라는 노래를 만든 것도 음성여자중학교이다. 노랫말처럼 음성여자중학교는 학교 폭력에 대한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이다. 또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봉사과 협동 정신 강화를 위한 단체 활동 운영, SNS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술 치료나 상담, 다양한 예술 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축제와 체육대회, 행복한 학급 운영을 위한 삼겹살 파티까지 학생들이 공부뿐 아니라 정서도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 학생복지부장 교사는 "학급별 합창대회, 클래식 음악 청취, 발레·연주회 관람 등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와 발표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협동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탄현중학교 학생들은 학급별로 연 1회 학교 운동장에서 '1박 2일 학급 야영'을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게임과 장기자랑, 음식 콘테스트 외에도 학급 토론, 담임 교사와의 대화 시간, 친구 및 부모님께 편지 쓰기 등 하룻밤 동안 진행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1박 2일의 프로그램들을 함께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협동과 토론, 자기 표현 능력이 한껏 자라난다. 또한 탄현중학교는 중국 금주시와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국 학생들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 체험을 하면서 각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해 한층 넓은 시각과 긍정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진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하기 위해 탄현중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시간씩 진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것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꿈따라 길따라(꿈길노트)'이다. 이것은 탄현중학교 교사들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1년간 작성한 진로노트를 통해 12월에는 비전 선포식을 하고 자신의 꿈을 발표함으로써 실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제 역할 충실'

이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은 교사들의 남다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충현중학교, 음성여자중학교, 탄현중학교 교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야근을 하며 새로운 교육 방안을 고민한다. 학교장들도 교사들의 이런 노력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좀더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고 독려함으로써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교사들이 내놓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에 대해 관리자가 전폭적으로 권한과 지원을 해주니 몸은 힘들어도 신바람 나게 고생(?)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보람과 더불어 새로운 목표와 의욕이 자꾸만 생겨나게 된다. 업무가 늘어나 교사들은 힘들어도, 그만큼 학생들과 학교가 행복해지니 교사들 역시 행복하단다.

충현중학교 연구부장 교사는 "충현중학교는 항상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더 즐겁게 고민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동료 교사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간다"고 말했다.

좋은 학교에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교사들도 좀더 오래 머물고 싶어한다. 5년 임기가 지났지만 음성여자중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교무기획부장 교사는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관리자와 교사,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관리,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력과 인성, 생활 교육이 융합된 좋은 프로그램과 이를 경영할 수 있는 열정·관심이 비결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노력에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보태진다면 금상첨화다. 탄현중학교는 매년 '탄현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를 실시,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의 구불구불한 산책길인 '살래길'을 함께 걸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2013년도 행사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상공인들까지 6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공인 협의회는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을 탄현중학교에 기탁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가족 캠프나 걷기 대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같은 봉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국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의 공통점은??

위에서 소개한 3개 학교의 인터뷰를 통하여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의 모습이 밝고 활기차며 학교 분위기가 생동감 넘친다는 점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를 어루만지고 꿈을 키워주기 때문에 오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된 것이다.

둘째, 학교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가 공통의 목적의식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학교장은 큰 그림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항상 교사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에 힘입은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실행하며, 학생들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한다. 또, 학부모들은 학교의 정책과 시행을 전적으로 믿고 돕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꿈과 끼를 쉼 없이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수업 방식, 체험 학습, 지지와 존중의 분위기, 균등한 참여 기회, 미션 설정과 성과 달성, 교사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간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필요 사항이 도출되고 해당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교육을 단순히 학생들의 학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사, 학부모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